

시론



이정록 전남대 교수·대한지리학회장

광주시정(市政) 성과, 이용섭 시장 리더십이다

주를 AI 중심도시로 만들어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프로젝트는 이 시장의 혜안(慧眼) 그 자체다. 관련 기업과 연구소의 유치,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해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신생 창업 기업들을 위한 금융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 준비 등 세 박자가 맞으면 가능하다. 광주가 다른 도시보다 일찍 뛰어들어 이른바 선발(先發)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를 만든 원동력을 과연 무엇일까? 미국 윌리엄스대 교수였고 리더십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제임스 맥그리거 번즈(J. M. Burns)가 주장한 '변혁적 리더십'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갖고 확신에 찬 행동을 보여주며, 지적 자극과 개인적 배려를 통해 계획한 목표를 이룬다고 번즈는 설명했다. 구성원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면 구성원은 리더가 설정한 공통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뛰는 개념이 변혁적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리더의 성격과 기질과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형적인 변혁적 리더십 소유자다. 성격과 기질이 딱 그렇다. 그의 말처럼 '고향 광주발전

을 위해 일하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이니 광주 미래에 고민이 많았을 거다. 꼼꼼하고 분석적인 성격에다 풀리지 않으려는 기질이니 광주의 미래 설계를 놓고 밤새 공부했을 거다. 본인처럼 똑똑하고 애함심 많은 공무원들과 일하며 가능한 일을 거다. 구성원들에게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하자는 동기를 부여하고 배려했기에 성과 도출이 가능했다.

확신에 찬 이 시장의 행동도 마찬가지다. 광주시장에 두 번 도전해 실패하면서 이 시장의 내공(內功)은 단단해졌다. 지역이 배출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료'라는 타이틀에 쓰라린 패배로 내공까지 다져졌으니 '준비된 시장'이란 세평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광주발전을 위한 비전을 시민에게 제시할 수 있었다. 행정부와 청와대와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는 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다.

'혁신 전도사'란 별명은 리더십 발휘에 충분조건이었다. 시민권익 위원회를 만들어 찬반 논쟁으로 16년을 헤맸던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해결했다. 시정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경청의 날' 제도, 시정 직원들의 인사에서 본인 희망과 부서 추천을 고려해 배치하는 이른바 '희망인

사시스템' 등은 시민과 시정 직원들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이 시장의 리더십은 올해 더 많고 풍성한 성과를 꽃피울 것이다. 첨단 3지구 내에 조성하려는 인공지능융복합단지(9월경 완성)와 양산 체제로 들어설 광주글로벌모터스, 쇠락한 광주역 일대에 1조2천억원을 투입해 '광주형 실리콘 밸리'로 조성하는 사업 등은 광주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반이다. 2년6개월 만에 만든 성과가 그 증표이지 않나.

이 시장은 소책자의 머리말 끝부분에서 '응변창신(應變創新)'을 말했다.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선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뜻이다. 자신이 걸어온 인생 여정을 합축하고 있다. 시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자취를 하면서 대학 재학 중 교시에 합격해 서울에 화려하게 입성했지만 지방대 출신 설움이 오죽했을까. 관료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했다.

응변창신의 결과가 '민선7기 2년 6개월의 성과와 향후 비전'이란 소책자에 오롯이 담겨있다. 때문에 이 시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더 찬란한 성과를 꽃피울수록 새해가 더 기대된다.

社說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장수학교도 위기가

광주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가팔라진 인구절벽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100년 이상 '장수학교'로 불리는 서석초, 중앙초, 삼도초, 수창초 등은 1970-1980년대 전체 학습수 90개 가량, 학생수 5천-6천명에 달할 정도로 명문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는 도시 공동화에 따른 학생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미니학교가 됐다. 서석초는 학습수 9개, 학생수 152명, 중앙초는 학습수 6개, 학생수 32명, 삼도초 학습수 6개, 학생수 48명, 수창초는 학습수 6개, 학생수 69명에 그쳤다.

신생아가 줄면서 광주 병설 유치원은 처음으로 휴원하게 됐다. 중앙초·월곡초·동초·치평초 등 4곳은 오는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간 휴원한다. 2021년도 원아 모집 결과, 중앙초·월곡초 병설 유치원은 각 0명, 동초는 2명, 치평초는 3명에 불과해 학급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천182만9천여명으로 전년도 대비 2만여명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시골의 군 단위 기초

자치단체 한 곳이 사라진 셈이다. 출생자 수가 27만여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비해 사망자 수는 30만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출생자는 2017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3년 만에 30만명도 무너지면서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나타났다. 당초 전망보다 9년이나 앞당겨졌다.

저출산 현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들어왔다.

저출산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과제다. 국가 존립의 근거가 흔들리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교육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레 출산율은 높아지는 사실을 주시하길 바란다.

새해에도 희망찬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보다 긴 안목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전남의 미래 '블루 이코노미' 성과 나온다

전남도 핵심사업인 '블루 이코노미' 성과가 올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풍부한 청정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전남형 그린뉴딜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019년 7월 발표한 새천년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는 높은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가진 에너지·관광·바이오·미래운송기기·농수산·스마트시티 등 6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특히 100대 과제 로드맵과 관련해 국비 예산은 올해 121건 1조6천898억원에 이른다. 에너지 분야는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및 저압직류 핵심기술 인증지원기반 구축, 지능형 LV DC(저압직류) 핵심기술 개발, 관광은 한국정원문화원 건립과 흑산공항 건설,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원 조사·연구 등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 생명산업을 위해 농수산 분야의 경우 어촌뉴딜 300,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수출전략형 김 가공산업 육성,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 등이 확보됐다.

전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관련 국비가 대거 확보돼 추진이 순조로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에 비전수립 3년차,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과 블루 이코노미가 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동일한 목표로 설정,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21년 새해,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겠지만,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됐다.

전남은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행복시대의 기쁨을 다지고자 한다. 사람과 생명까지 존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대전환기, 도전과 변화에 당당히 맞서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블루 이코노미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의정칼럼



김기성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코로나19 시대, 작은 관심으로 안전한 겨울나기

재의 주요 요인이 된다.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률이 30%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전원을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놓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대표적인 난방기구인 전기장판은 편리성만큼이나 화재위험이 높고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전기장판·온열기구는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끄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화재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온풍기 주위에는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물질들을 가까이 두지 말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해야만 한다.

둘째, 화목보일러의 경우 가연물(11-2월)이 35%(1만3천344건 중 4천691건)로 가장 높았으며, 인명피해는 198명으로 전체 565명의 3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추운 날씨 탓에 화재 빈도가 높은 계절이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화재에 대한 걱정이 많다. 그렇다면 겨울철에 화재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겨울철 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전열기구는 동절기 전기 화

재하고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를 실시하는 것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

셋째,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꼭 구비하고 평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좋다. 각 가정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의 천정에 설치하면 된다.

넷째, 음식물 조리 시 자리를 비우지 말고 가스밸브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화재통계를 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중 음식물 조리가 특히 많았다. 따라서 음식물 조리 시 자리를 비우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음식물 조리가 끝난 뒤에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밸브가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중증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동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때다.

화재는 항상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굳이 이맘때쯤 '불조심'을 강조하는 건 불의 취급과 난방기구의 사용이 다른 계절보다 증가해 더욱 더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지속해서 매년 크고 작은 화재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안전불감증(무관심·부주의)에서 기인한다.

'금과옥조(金科玉條)'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는 금옥(金玉)과 같이 몹시 귀중한 규칙이나 교훈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우리는 종교적·도덕적·윤리적 측면 등에서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게 많다. 그중 '안전가치'를 실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고는 방심과 부주의에서 온다. 겨울철에는 이방 방심과 부주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며 우리의 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 글에서 제안한 네 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서 안전한 겨울나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들고 일상적인 생활이 그리워지는 지금, 마스크 착용 등 공공보건수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화재 예방도 꼭 실천해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시길 당부드린다.

독자투고

지혜와 양보의 운전

행동의 변화는 행운의 시작이다. 정의를 행하고, 상호 신뢰를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행운을 얻는 첫걸음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 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만의 힘든 전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정의를 박탈할 수 없다.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와 시비 때문에 운전자의 상식을 벗어난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접촉사고 때문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

급차를 막아 세우고,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과 난폭·보복 운전 등 시비로 가족 동승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화재가 많은 운전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하는 행위가 이들의 민낯이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쯤이면 관망하는 건 악마의 속삭임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세상의 모든 이들은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한다. 마음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분노한다. 그러나 현자(賢者)는 매사에 악이 아니라 선을 찾고, 사랑을 베풀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누구든지 참혹한 민낯을 보기 전에 끊임없이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 공동체 사회의 뜻에 따르려는 끊임 없는 노력만이 공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커다란 기쁨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늘 실천해야 한다. 바로 공동체 사회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 그 이상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 합당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에 헌신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마음은 내려놓고, 겸손하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운전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서로를 위해 양보합시다.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양보에서 시작됩니다. <주은숙·광선경찰서 평동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그래픽 뉴스

코로나에 팍팍해진 삶...술·담배소비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술, 담배 지출액이 역대 가장 크게 늘어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계절조정, 명목) 가운데 주류 및 담배 지출액은 4조2천975억원이었다. 이는 1970년 한이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앞서 지난해 1분기에 이 부문 지출액은 4조1천585억원을 기록해 2017년 4분기(4조2천99억원), 2016년 1분기(4조1천752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커졌다.

지난해 2분기에 4조1천761억원이나 써 2017년 4분기 기록에 바짝 다가섰고, 3분기 들어서는 아예 새 기록을 썼다. 지난해 3분기의 1년 전 대비 술, 담배 지출액 증가율은 6.2%로, 2016년 2분기(6.5%)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적 피로감이 커진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강화하자 술, 담배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환위기가 그림자가 드리우던 1997년 1분기에는 술과 담배에 1조6천895억원이 쓰여 한 해 전보다 20.0%나 지출액이 급증했다. 그해 2분기(1조6천930억원)에도 1년 전 대비 증가율은 18.6%에 달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봤을 때도 지난해 3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 월평균 가계지출 가운데 주류·담배 소비지출 금액은 4만2천980원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주류(1만9천651원)와 담배(2만3천329원) 소비지출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朴俊洙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李庚秀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기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시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편집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